



세계 요리 만들어요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10일 광주시 동구 중앙도서관 세계요리교실에서 멕시코 빵인 토띠아를 만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청소년 범죄예방 소식지 '눈에 띄네'

광산경찰, 매월 맞춤형 가정통신문 제작 학생가정 전달 그루밍 성범죄 등 범죄 유형별 사례·대응 요령 등 담겨

“최근 ‘일진’ 학생들이 선불카드 충전(신규 발급)을 강요해 아이들 돈을 뺏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찰이 올해년부터 광주시 광산구 학생 가정에 ‘범죄 예방 가정통신문’을 보내며 청소년 범죄 예방에 공을 쏟고 있다.

학교폭력·물레카메라·무인가게 절도 등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자 광산경찰이 매월 맞춤형 가정통신문을 제작한 뒤, 관내 초·중·고교를 통해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것이다.

첫 가정통신문인 2022년 4월호는 ‘선불카드 발급 강요’를 다뤘고 5월호에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설명했다. 6월호와 7월호에선 ‘무인가게 절도’, ‘그루밍 성범죄’를 다뤘다.

A4 용지 한 장으로 된 경찰 제작 가정 통신문은 학부모와 지역아동센터 교사 등 보호자를 겨냥해 만들었다.

요즘 청소년들이 자주 저지르는 범죄는 무엇인지, 역으로 요즘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죄는 무엇인지 등을 쉽게 담아 누구든 한눈에 이해되도록 했다.

특히 범죄 행위 적용 법률 조항, 처벌 내용 뿐 아

니라 가정에서의 대응 요령도 담았다.

예컨대 4월호에선, 선불카드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충전 및 결제가 가능한 수단(○○머니)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요즘 ‘신규 발급 때’ 지급되는 보상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선불카드 발급을 강요하는 방식의 학교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고 알린다.

이런 행위는 수반되는 행위에 따라 형법상 강요죄, 공갈죄, 감금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넘겨지는 것은 물론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안전한지를 보려면 자녀 휴대전화에 이전에 없던 앱이 새로 깔렸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학교전담 경찰관에 신고하거나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1388)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한다.

또한 5월호에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례를 담고, 촬영을 시작한 시점부터 범죄실행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되며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아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최근 광주에도 늘어나고 있는 무인점포 절도사례

를 담고 있는 6월 소식지에는 청소년들 여러 명이 함께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가져가면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정통신문은 광산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만들었다. 범죄 유형과 대응방안을 담은 통신문까지 경찰관들이 만들고 나선 데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다.

코로나 이전 분기마다 학교나 시설에서 진행되는 학부모 총회와 같은 회의나 설명회가 있었지만 코로나로 모두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점도 반영됐다.

광주에선 지난해 112에 신고된 학교폭력 건수가 1523건이던 것이 올 들어선 7월 말까지 1093건을 넘어선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이 만든 가정통신문은 파일 형태로 광산구 각급 학교에 보내진 다음, 학교에서 가정에 보내는 통신문과 함께 발송된다.

일부 학교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학부모와 공유한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들과 아동센터 교사들로부터 ‘최근 이런 범죄가 뉴스에 나오는 걸 봤는데, 이런 법률이 적용되고 처벌 내용과 대응 팁까지 소개돼 이해가 쉬웠다’는 등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소년 범죄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다채

광주 지자체, 양림동 문화행사·소년상 건립 5주년 기념 등

광주시 기초자치단체들이 오는 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앞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광주시 남구는 오는 12-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으로 정하고 양림동 일대에서 문화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12일에는 오후 4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양림동 평화의 소녀상 일대와 공예특화거리 내 잔디광장에서 ‘청소년 평화 축제’를 연다. 행사에서는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자유발언을 비롯해 노래·댄스 등 길거리 공연이 진행된다.

13일에는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양림동 역사문화 투어가 진행된다. 사전 접수를 통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10가족이 참여해 현지 한국사 교사와 함께 양림동 3·1운동 만세길 등 양림동

역사문화 공간을 탐방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남구청 감사담당관(062-607-2222) 또는 봉선청소년문화의집(062-652-0924)으로 하면 된다.

북구는 12일 오후 4시 북구청 광장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 5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이날은 역사골든벨, 사물놀이·댄스·밴드 공연 등의 축하무대, 참석자 결의선언·퍼포먼스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구는 12일 오전 10시 서구청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동구는 13일 오전 10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현화 행사를 열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교육청, 2학기 무상급식 단가 7.4% 인상

끼니당 최고 250원 올려

광주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무상급식 단가를 7.4% 인상한다.

시 교육청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돼 초·중·고·특수학교의 무상급식비 단가를 학교급별로 140-250원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광주시와 협의해 생활물가지수 증가율 등을 고려해 식품비 단가 7.4%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 부담 14억원, 시 부담 14억

원 등 총 28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상분을 반영하면 2학기 평균 무상급식비는 끼니당 초등학교 2971원, 중학교 3449원, 고등학교 3392원, 특수학교 3752원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 겨울방학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협의회를 이달 내 구성하기로 했다.

관련 협의회에는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등 노조와 교장·영양사·조리원·조리사 등 직능 대표, 학부모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문인 북구청장, 신규 공직자와 ‘솔직토크’

새내기 공직자와 구청장이 세대·직급간의 벽을 허무는 영상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 북구는 10일 문인 북구청장과 1990년 대상 신규 공직자 3명이 함께하는 광주 북구청 유튜브 ‘솔직토크’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전체 10분 분량의 영상은 문 청장과 신규 직원들간 안부 대화와 평소 궁금했던 질의응답의 프리토크, 밸런스 게임, 구청장 다짐 챌린지로 구성됐다.

영상에서는 대화 도중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세대 간 차이로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으며, 같은 의견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각자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다짐 챌린지에서 “주민들과 직원들의 힘든 점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책임감 있게 해결하는 ‘키다리아저씨’ 같은 구청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대병원, 응급환자 전용 신속 PCR 검사 장비 도입

조선대병원은 응급환자들을 위해 코로나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 장비 4대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선대병원이 도입한 ‘STANDARD M10’ 장비는 한 시간 이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해당 장비는 유전자 동시 검출이 가능하고 카트리지 내 단독 검사를 진행하며 기존 실시간 유전자증폭 검사와 유사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인다.

병원 측은 중증 응급환자와 응급수술 환자 전용으로 장비를 운용할 계획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